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오해옥(여, 1933년생, 성산읍 삼달1리)

- 줄거리: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데 하루는 토끼를 잡아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였다. 꾀 많은 토끼가 솔에서 탈출하고 할머니의 아들을 솔에 넣어 죽게 한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영감. 할마이가 사는디. 하루는 나가 이거 어릴 때 육지서 살명 들었는디. 영감 이 하는 말이. 나무하례 산에 나무하례. 간 갖는다. 산토끼 헌나 잡은 거라. 잡안 완 집에 와서 할머니 보고, 할망 보고,

“할멈. 산토끼 하나 잡아왓는디. 국을 낀령 먹자.”

허난. 할망도 지꺼지고 하르방도 지꺼지고 헤네. 이젠 솟디 놓 할망은 토끼를 심 어낳그네 불을 떼그네 딸리젠허고, 하르방은 저 마당에서 도끼질을 허는디. 토끼는 그 혈 때 그만. 톡톡 튀어난. 솟디 집어 노난 토끼가 튀어난. 그 집이 영감 할마이 애길 잊인 거라. 얘기가 물애기가 잊이난. 그 물애긴 누워난 단. 그 토끼가 꿰로 뭐 할멈이 어디 뭐 허레 뎅겨부난. 하르방은 저 어디 나무 폐고. 또 할망 또 뭐 허는디.

토끼가 확허게 일어난. 그 애길 앗단 솟뚜께 열어난 톡 들이쳐 두고, [웃음] 두고, ?만히 누웠이나네. 이제 애길 놓 국 낀린 거라. 국 낀린 난. 할망은 하르방?라.

“영감. 국 다 낀렸어요. 와서 잡주세요.”

허니깐. 할망 하르방이 국을 두 개 거려 노난 하는 말이.

“이건 똑 우리 얼라 발 같다.”

허나네.

“그러게 말이지.”

또 먹으면서.

“이거 우리 얼라 똑 손 같은데.”

허난.

“그래. 글쎄 딱 같은데.”

허멍, 다 먹어가난 토끼는 알아들엉 잇당. 톡톡 튀엉 나완.

“지 자석 지 잡아먹는 거. 네 쫓 빨아라 네 쫓 빨아라.”

튀엉 둘앗젠허는 말.

토끼가 그만큼 육앗젠허는 말.

- 핵심어 : 할망, 하르방, 산토끼, 물애기, 솟, 국, 꾀